

정부 공모사업 유치 전략 경제 활성화

군산시, 도시재생·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등 총력

군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 공모사업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 25일 시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국고보조사업 배정 방식을 자치단체 간 경쟁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춘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지난해 ▲스마트건설용 융복합부품평가기능 기반구축(199억)사업

호센터 설치 지원 사업에 공모할 방침이다. 또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2020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도시지역 소규모 소각기 설치사업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관광지 무로와이파이 구축사업 공모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군산시는 공모에 필요한 사전 행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민간의 준비를 하는 한편, 전북도 소관 부서 및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논리를 보강하는 등 사전



지난 25일 군산시 사이버 기자단 발대식이 열렸다.

시민과 더 가깝게 군산시 사이버 기자단 발대식

군산시 온라인 홍보를 담당할 2019년 사이버 기자단이 지난 25일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군산 알리기

기자단의 활동은 주로 행사·축제 등 생동감 있는 현장의 이야기와 전국에 군산의 ▲관광 ▲축제 ▲문화예술 ▲지역 특산물 등을 소개하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군산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이버 기자단이 시정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생각과 시각을 담아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해주길 바라며 진솔한 목소리를 담은 콘텐츠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시설사업소, 새해 정례브리핑

군산시시설관리사업소(소장 서경찬)가 기해년 새해를 맞아 정례브리핑의 시간을 갖고 풍요로운 문화도시 군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시민들의 문화 예술 욕구를 충족시킬 다양한 장르의 맞춤형 기획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설문조사 시 선호도가 높았던 뮤지컬, 클래식, 연극, 콘서트 등을 위주로 대중적이고 작품성을 있는 총 22건의 공연과 전시를

최고의 여성 디바 3인방 최정원, 전수경, 홍지민의 '3 DIVA' 콘서트가 펼쳐져 관객들에게 활기찬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클래식계의 빅뱅이라 불리는 '앙상블 디토'와 굵고 힘 있는 연기를 선보이는 이순재 주연의 연극 '말리 할아버지와 나', 창작뮤지컬 '그날', 지역예술인들과 함께하는 '썸머 페스티벌', 여름방학 체험전시 등 밀도 높은 라인업으로 기획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주현호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저렴한 티켓료 책정을 통해 시민들이 문



군산시는 어린이의회 정기회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아동친화도시 군산, 어린이·청소년 정기회 개최

아동친화도시 군산시는 지난 24일 '제2회 어린이·청소년의회 정기회'를 군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회 정기회는 지난 2018년 3월 새롭게 구성된 제3기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마지막 회의 일정으로, 그동안 진행되었던 정기회 2회, 임시회 9회의 바쁜 회기 일정을 순조롭게 마감하는 자리였다.

제3기 어린이 청소년 의회는 ▲어린이·청소년의회 아카데미 ▲어린이·청소년의회 워크숍 ▲참여예산 학교 ▲정책제안대회 등 어린이 맞춤형 교육 및 토론 등을 진행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의회 발전 유공자에 대한 시상 및 어린이 청소년 의원대표와 부모님 대표

군산시 명절맞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군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 및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원산지 이행여부 ▲위장판매 ▲원산지 표시 손상 ▲통신판매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 적발 시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제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적발 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문영엽 농산물유통과장은 "설맞이 원산지 유통 단속을 강화하여 부정 유통행위를 근절함은 물론, 설 명절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지역서점 신뢰구축 '지역서점 인증제' 시행

익산시는 지역서점의 신뢰구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서점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익산시 지역서점 인증제는 실제 일정규모의 방문용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상에 도·소매업, 서적으로 등록돼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하는 서점에 대해 인증요건을 충족하면 인증서를 교부하는 제도다.

인증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지역서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쇄업 등 다

른 업종과 겸업하지 않아야 한다.

또 서적의 전시·판매 면적이 전체 바닥면적의 30% 이상인 서점(단 8평 이하의 매장은 바닥면적의 50%이상인 서점), 외부간판이 설치돼 있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외러 매장 하나에 한 사업지만 인증을 받게 된다. 신청방법은 인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모현도서관에 접수하면 된다. 인증을 받은 서점은 시립도서관에서 도서구입 시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익산시, 농업 경쟁력 강화 '농촌진흥사업' 접수

익산시는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2019년 농촌진흥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8일까지다. 농촌진흥사업은 최고 품질 과제생 산기술 시범단지 조성 등 모두 4개 사업이다. 농촌진흥사업은 연구 개발된 신기술을 영농현장에 반영하고 농업현장에 시범 적용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추진된다.

농가 기술수준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증진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

인,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등이다.

사업 희망자는 시청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나 읍·면·동 산업계 또는 농업인상담소를 통해 사업내용을 확인한 후 사업지침에 따라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구비해 농업기술센터 해당 사업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신청이 완료되면 현지심사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2월 말경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지역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연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